

학생 주도 언어문화 개선... 학폭 예방

전북교육청, '따뜻한 언어문화 실천 학생 서포터즈단' 17개 팀 선정... 캠페인 등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 참여형 언어문화 개선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따뜻한 언어문화 실천 학생 서포터즈단' 17개 팀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활동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일상 속 언어 습관을 개선하고, 존중과 배려가 지리 잡는 학교 문

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포터즈단은 팀별로 5명 이상의 학생과 지도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을 비롯해 언어문화 개선 관 자가진다. 교내 방송 및 홍보 활동, 문화예술 기반 창작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특히 학생 스스로 언어 사용을 돌아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선정된 팀은 초등학교 6팀,

중학교 7팀, 고등학교 4팀 등 총 17개 팀으로 각 학교 특성에 맞는 활동을 통해 언어문화 개선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들 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담당교사 협의회와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1인성 브랜드', 언어문화 개선 주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주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정책 효

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은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참여가 학교폭력 예방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들이 주도하는 언어문화 개선 활동은 건강한 관계 형성과 학교폭력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작은 말 한마디의 변화가 학교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중등 학습코칭 기본연수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이 교사의 학습코칭 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과 11일, 17일 세 차례에 걸쳐 관내 중학교 교사 19명을 대상으로 '2026 교실에서 실천하는 중등 학습코칭 기본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천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총 12시간 과정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학습코칭의 개념과 전략을 비롯해 학습역량 기반 학생 진단과 해석, 학습상담코칭 프로그램 설계 및 적용 방법 등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교사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연수에서는 학습코칭을 단순한 학습 지도 차이를 넘어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스스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과정으로 접근했다. 이를 위해 인지·동기·정서·행동 등 네 가지 영역에서 학생의 학습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이 다뤄졌다.

참여 교사들은 학습역량 프로파일링과 해석 상담 기법을 익히고 영역별 학습상담코칭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적용해보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코칭 역량을 강화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가 학습부진을 단순 성적 문제로 보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학습역량 진단에 대한 진단과 맞춤형 지원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교사의 진단·피드백·코칭 능력 향상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높이고 학습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상근 기자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은 지난 16일 전주홍산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학교·지역사회 협력 기반 통합지원모델 확산 모색

유정기 권한대행, 전주홍산초 방문... 학생맞춤통합지원 현장 점검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현장 정착을 위해 학교를 직접 찾았다.

유 권한대행은 지난 16일 전주홍산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 탐방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전북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정서 문제, 학교폭력, 이동학대 등 다양한 학생 문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생맞춤 통합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주홍산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로 지정된 이후 2년째 운영을 이어오며, 교직원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모든 교직원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팀'을 중심으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학교 적응을 돕고 가정과 지역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도 구축해 정책의 현장 적용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유 권한대행은 이날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는 "전주홍산초 사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의미 있는 모델"이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통합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대·서원대, 청년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협약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평생학습지원센터와 서원대학교(총장 손석민) 평생교육진흥분부는 지난 16일 지역산업 수요에 기반한 청년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활성화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원대학교의 '청년마이스터칼리지' 사업 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전주대학교의 평생직업교육 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역 산업과 연계된 실무 중심 교육 모델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청년층의 취·창업 및 지역정주를 유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청년마이스터칼리지 사업 운영 사례 및 성과 공유 △청년 대상 직업교육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지역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 교류 △앵커(Anchor) 사업 연계 공동사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지선 대비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식 강화

전북교육청, 공직선거법 교육 사례 중심 교육으로 위법 예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식 강화와 법령 준수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17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6월 3일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공무원의 선거 관련 금지 범위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시 주의사항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이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비롯해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관련 유의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초빙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현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발생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선거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

직사회 전반에 걸쳐 정치적 중립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안홍일 총무과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정한 선거를 지키는 기본"이라며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인식 제고와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글로벌 방산 선도기업과 전략적 협력

전북대, 탈레스 그룹과 방위산업 인재양성 등 협약 첫 국내 장학금 지원·인턴십 등 실질적 연계 추진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유럽을 대표하는 방산기업 탈레스(Thales) 그룹과 손잡고 글로벌 방위산업 및 첨단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나섰다.

전북대는 지난 16일 탈레스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기반 미래 인재 육성과 산학협력 확대를 위한 중장기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탈레스는 항공우주, 방위, 사이버보안, 디지털 아이덴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한국에서도 40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주요 파트너다. 이번 협력을 통해 탈레스는 국내 우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지원하고, 글로벌 사업과 연계 가능한 인재 풀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방산기업이 국내 대학과 직접 연계해 인재를 육성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탈레스가 국내 대학과 협력해 장학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글로벌 방산기업의 인재 확보 전략이 한국 대학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탈레스는 올해 국내 최초로 신설된 전북대학교 첨단방산학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를 시작으로 장학금 지원을 비롯해 멘토링, 인턴십 연계 등 실질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협력의 핵심은 탈레스의 STEM



for All'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STEM 분야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기업 전문가와의 멘토링 및 교류 기회를 통해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산업 현장과 연계된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모델로 평가된다.

전북대학교는 이번 협력을 통해 첨단 방위산업 융합 교육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장학금, 멘토링, 인턴십으로 이어지는 연계 구조를 구축해 학생들이 글로벌 산업 환경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K-방산을 선도할 차세대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이번 협약은 지역과 글로벌 기업을 연결하는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전북대가 추진 중인 방위산업 학과 신설과 방산 클러스터 구축에 글로벌 기업 협력이 더해지면, 교육·산업·지역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생태계 형성이 기대된다.

/김재훈 기자

학부모 참여형 학교급식 정책 추진

전북교육청, 정책모니터단 출범... 급식 운영 전반 의견 반영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급식 정책 추진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7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6 학부모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행사는 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급식 공급·소통의 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장과 급식 관계자, 학부모, 학생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학교급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연속 기획이다. 특히 이번 발대식은 급식의 주요 수요자인 학부모의 시각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 정책모니터단과 교육청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주요 정책 안내와 특강, 현장 소통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모니터단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며, 학교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 제안, 우수사례 발굴, 가정과 연계한 식생활 실천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향후 학교급식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학교급식 정책의 현장성을 높이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급식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올해 초등 교육과정 컨설팅 계획 수립

전북교육청, 단위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 전반 지원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 초등학교 교육과정 컨설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7일 2026년 초등 교육과정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단위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학교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 1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표를 활용해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부터 운영, 평가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도록 했다. 각 학교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개선하게 된다.

교육지원청 중심의 현장 컨설팅도 확대된다. 교육지원청은 2년 주기로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매년 전체 학교의 절반 이상을 대상으로 대면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장항사와 교육과정 현장지원단이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교별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학교 및 학년 단위 교육과정 설계, 학교자율시안 운영, 교육과정 워크숍 운영 방법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컨설팅은 오는 10월까지 이어지며, 이후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공통 과제를 모든 학교와 공유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